



# 세종정책브리핑

## Sejong Policy Briefing

### 김정은 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 김정일 정권과의 비교 <sup>1)</sup>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1. 개요

- 김정일 시대 핵심 파워엘리트 퇴진 및 신진 엘리트 대거 등장
  -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이 구축하려 했던 후계자 김정은 후견체제는 완전히 와해되는 등 김정일 시대 핵심 엘리트 대부분 현직에서 퇴진
  - 2016년 제7차 당대회와 2017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거치며 신진 엘리트 대거 등장, 김정은 측근 엘리트의 세대교체 가속화
- 숙청, 처형, 교체, 강등 등 엘리트 충성 검증 계속
  - 김정일이 구축하려 했던 후견체제의 핵심 인물 리영호 총참모장과 김정일 시대 실질적인 2인자였던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정권 도전 세력에 대한 본보기 숙청으로 공포분위기 확산
  - 최룡해, 김영철 등 핵심 엘리트들의 단기간 혁명화교육, 최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보위상 숙청설
-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파워엘리트 변화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이 목적임

1) 본 연구는 필자가 2015년에 연구하였던 “김정은 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과 함의” (『주간국방연구』 제 1584호(15-37) 2015년 9월 14일)를 기초로 하여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한 것임

- 첫째, 김정은 시대 핵심 실세 엘리트와 분야별 실세 엘리트 파악
- 둘째, 김정은 시대 핵심 엘리트 변화의 특징을 김정일 시대와 비교 분석
- 셋째, 그러한 변화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

## 2. 김정은 공개활동시 수행인물을 통해본 엘리트 변화

### ○ 김정일 정권 말기(2009-2011년) 공개활동 수행 인물

퇴진	강석주(18, 24, 18), 광범기(0, 9, 10), 김경옥(0, 5, 32), 김경희(17, 78, 75), 김기남(107, 85, 64), 김명국(17, 7, 14), 김양건(16, 33, 32), 김영일(2, 29, 21), 김영춘(32, 35, 21), 김원홍(17, 8, 39), 김정각(31, 33, 44), 김창섭(0, 3, 17), 리영호(21, 33, 56), 리재일(16, 22, 9), 문경덕(0, 15, 45), 박도춘(7, 37, 61), 박재경(0, 0, 19), 우동측(1, 15, 31), 윤정린(0, 7, 20), 장성택(80, 110, 103), 주규창(12, 40, 51), 최태복(21, 52, 39), 현철해(57, 42, 55), 홍석형(10, 45, 13)
현직	김영철(0, 4, 15), 김평해(11, 21, 30), 리명수(51, 37, 42), 리병철(1, 3, 12), 박봉주(0, 0, 14), 최룡해(4, 26, 38), 태종수(3, 54, 61),

- \* 본 자료는 통일부 『월간북한동향』을 참고, 필자가 작성한 것으로 공식적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 \* 위 표의 퇴진 인물은 김정은 시대 말기 핵심 측근들 중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퇴진한 모든 인물들을 포함하는 것임

- 김정일 정권 말기 공개활동 수행이 가장 빈번하였던 인물 전체 31명 중 7명만이 최근까지 김정은을 수행, 24명은 수행 중단, 강석주, 김양건 등 2명은 사망
- 김영일, 김창섭, 리영호, 문경덕, 장성택 등 숙청/처형, 김원홍은 숙청설
- 김경희, 김명국, 김영춘, 박재경, 우동측, 주규창, 현철해, 홍석형 등은 퇴진
- 김기남, 최태복은 2017년 11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퇴진하였을 가능성
- 그러나 김경옥(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정각(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리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윤정린(호위사령관) 등은 김정은 공개활동 수행이 없다는 점에서 현직 유지가 불확실

○ 김정은 정권 초기(2012-2013년) 공개활동 수행 인물

퇴진	김정일	강석주(13, 15), 김경희(28, 23), 김격식(2, 33), 김명국(17, 0), 김영일(11, 14), 김영춘(24, 18), 김정각(30, 2), 김창섭(10, 8), 리병삼(12, 11), 문경덕(28, 22), 박재경(22, 0), 장성택(77, 44), 현철해(37, 8),
	김정은	장정남(0, 40), 현영철(19, 25),
현직	김정일	곽범기(8, 16), 김경옥(11, 14), 김기남(39, 30), 김양건(32, 24), 김영철(14, 16), 김원홍(33, 23), 김평해(23, 16), 로두철(4, 11), 리명수(13, 3), 리병철(5, 6), 리영호(25, 0), 리용무(9, 6), 리재일(15, 13), 박도춘(32, 14), 박봉주(3, 27), 양형섭(11, 12), 오극렬(11, 7), 주규창(13, 12), 최룡해(63, 118), 최태복(22, 28),
	김정은	김병호(11, 7), 김수길(0, 10), 럽철성(0, 20), 리영길(0, 36), 림광일(0, 11), 마원춘(7, 38), 박정천(1, 35), 박춘홍(10, 3), 박태성(1, 40), 서홍찬(0, 8), 손철주(6, 18), 안지용(1, 8), 윤동현(5, 20), 전창복(3, 13), 조경철(9, 12), 조연준(5, 11), 최부일(9, 22), 최휘(0, 17), 한광상(8, 8), 홍영철(0, 27), 황병서(19, 51)

\*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참고 필자가 작성, 공식적인 통계와는 다를 수 있음

\* 퇴진은 2012-2013년 기간중 퇴진한 인물

\* 김정일 시대부터 수행한 인물과 김정은 시대 새롭게 수행자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구분

- 이 시기 인물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김정일이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리영호 총참모장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성택의 숙청 및 처형
- 특히 장성택의 처형으로 그 일파로 분류된 김영일 국제담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 책임비서 등 숙청
- 또한 김정일 시대 핵심 측근 중 김정은 정권 초기에 2선으로 퇴진한 인물은 김명국(작전국장), 김정각(인민무력부장), 박재경(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이병삼(인민내무군 정치국장), 현철해(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 이 시기 강석주와 김격식 사망
- 반면에 황병서를 비롯하여 김병호, 김수길, 럽철성, 리영길, 마원춘, 박정천, 박태성, 최부일, 최휘, 홍영철 등 김정은의 신진 측근들이 부상하기 시작

○ 장성택 처형 이후(2014-2015년) 김정은 공개활동 수행 인물

퇴진	김정일	김양건(7, 27), 리재일(30, 28),
	김정은	김명식(10, 1), 박도춘(6, 0), 변인선(26, 0), 장정남(24, 0), 한광상(62, 14), 현영철(19, 10),
현직	김정일	곽범기(3, 4), 김기남(12, 12), 김영철(13, 2), 김원홍(10, 4), 김평해(5, 5), 리병철(25, 18), 박봉주(6, 11), 오금철(11, 8), 오일정(10, 6), 윤동현(14, 9), 최룡해(54, 24), 최태복(14, 2),
	김정은	김여정(14, 24), 김수길(9, 5), 김정관(8, 7), 럽철성(15, 13), 리영길(37, 27), 리일환(4, 10), 마원춘(36, 5), 박영식(13, 25), 박정천(27, 3), 박태성(5, 2), 서홍찬(34, 15), 손철주(0, 9), 오수용(5, 25), 장동운(11, 1), 전용남(6, 12), 조경철(20, 7), 조남진(1, 6), 조용원(1, 42), 최부일(5, 0), 최영호(1, 8), 홍영철(16, 12), 황병서(118, 79)

\*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참고, 필자가 작성 공식적 통계와 다를 수 있음

\* 퇴진은 2014-2015년 기간중 퇴진한 인물

\* 김정일 시대부터 수행한 인물과 김정은 시대 새롭게 수행자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구분

- 김정은 집권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집권 이후 발탁 또는 부상한 인물들이 과반을 넘어서 신엘리트 집단 형성
- 2015년 12월 김양건 통전부장 사망, 박도춘,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퇴진
- 김정은 집권 이후 부상한 인물 중 김명식 해군사령관, 변인선 작전국장, 장정남/현영철 인민무력부장,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등은 좌천 또는 숙청

○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공개활동 수행 인물

퇴진	김정은	황병서(41, 28), 김원홍
현직	김정일	김기남(10, 2), 김영철(4, 0), 김평해(4, 0), 리명수(17, 7), 리만건(16, 8), 리병철(14, 17), 박봉주(6, 8), 최룡해(26, 15), 최태복(5, 2)
	김정은	김광혁(1, 5), 김락겸(5, 9), 김수길(4, 5), 김여정(8, 0), 김용수(5, 7), 김정식(9, 15), 김창광(5, 0), 리수용(4, 1), 리영길(12, 8), 리일환(8, 1), 마원춘(17, 4), 림광일(4, 0), 박영식(13, 8), 박정천(9, 2), 박태성(4, 2), 서홍찬(4, 3), 안정수(8, 6), 오수용(18, 6), 유진(3, 6), 윤동현(9, 1), 장창하(0, 11), 정승일(2, 8), 조경철(4, 2), 조남진(7, 3), 조용원(44, 25), 홍승무(4, 1), 홍영철(12, 1)

\* 통일부 『월간북한동향』 을 참고 필자가 작성, 공식통계와 다를 수 있으며, 2017년 11월까지 통계입

\* 인물은 2016년 이후 퇴진한 인물

\* 김정일 시대부터 수행한 인물과 김정은 시대 새롭게 수행자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구분

- 김정은 시대 신진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대부분 수행
  - 2017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기남, 최태복, 리만건이 정치국 위원에서 해임, 2선 퇴진 가능성
  -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등 핵심 측근 숙청 또는 좌천
- ※ 황병서는 총정치국 검열 후 대좌 강등설, 김원홍은 국가보위상에서 총정치국 부국장으로 복귀하였다가 농장원으로 숙청설

### 3. 주요 직책을 통해 본 핵심 엘리트 변화

#### 가. 당 정치국

##### ○ 당정치국 인물변화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2016년 7차 당대회	2017년 당중앙위 7기 2차 전원회의
상무위원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황병서(?)
위원	강석주, 김경희, 김국태, 김기남, 김영춘, 리용무, 변영립, 양형섭, 전병호, 주성상, 최태복, 홍석형	곽범기, 김기남, 김영철, 김평해, 로두철, 리만건, 리명수, 리수용, 박영식, 최부일, 최태복, 양형섭, 김원홍, 오수용	유임: 김영철, 김평해, 로두철, 리수용, 박영식, 최부일, 양형섭, 오수용 신임: 박광호, 박태성, 태종수, 안정수, 리용호
후보위원	김낙희, 김양건, 김영일, 김정각, 김창섭, 김평해, 리태남, 문경덕, 박도춘, 우동측, 장성택, 주규창, 최룡해, 태종수	김능오, 김수길, 로광철, 리병철, 리영길, 리용호, 립철웅, 박태성, 조연준	유임: 김수길, 로광철, 리병철, 립철웅, 조연준 신임: 최 휘, 박태덕, 김여정, 정경택

- 김정일 정권시 2010년 10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임명된 당정치국 인물 총 30명 중 김영남(상무위원), 최룡해(후보위원→상무위원), 김평해(후보위원→위원), 태종수(후보위원→위원) 등 4명 유임
- 2016년 7차 당대회시 임명되었던 인물들 중 곽범기, 김기남, 리명수, 리만건, 최태복, 김원홍, 김능오 등 원로 그룹은 2017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해임, 교체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황병서와 김원홍 숙청설

- 김정일 정권에서는 측근들을 정치국에 배치하여 상당한 정치경제적 시혜를 제공하며 지배연합체제 강화에 활용한 것에 비해 김정은 정권에서는 당정군의 핵심 책임자급을 포진시켜 외형상으로는 국정운영의 최고 결정기관으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 즉 당(최룡해, 김평해, 박광호, 박태성, 김수길, 조연준, 최휘, 김여정), 경제(오수용, 박봉주, 로두철, 안정수, 림철웅), 군/군수(박영식, 태종수, 로광철, 리병철), 대남/대외(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공안(최부일, 정경택) 등을 모두 포함
- 작년 10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롭게 정치국으로 진입한 인물들인 정경택(국가보위상), 박태성(정무국 과학교육담당 부위원장), 안정수(경공업부장), 리용호(외상), 최휘(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박태덕(정무국 농업담당 부위원장), 박광호(선전선동부장) 등은 김정은의 친위세력으로 세대교체로 평가
- 2016년 제7차 당대회 당시 군부 인물이 7명(황병서, 박영식, 로광철, 리병철, 리명수, 리만건, 리영길)이었으나 2017년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박영식 인민무력상, 로광철 제2경제위원장,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3명만 유임, 군부 영향력 축소 평가

○ 당 정무국(비서국) 인물 변화

2010년(비서)	2016년(부위원장)	2017년(부위원장)
김기남,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박도춘, 태종수, 최룡해, 최태복, 홍석형	곽범기, 김기남, 김영철, 김평해, 리만건, 리수용, 오수용, 최룡해, 최태복,	유임: 김영철, 김평해, 리수용, 오수용, 최룡해 신임: 박광호, 박태성, 태종수, 박태덕, 안정수, 최휘

-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당 비서중 10명 중 김평해, 최룡해만 유임
  - ※ 김양건 사망, 김영일과 문경덕은 숙청, 박도춘과 홍석형은 퇴진
- 2016년 제7차 당대회시 당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던 인물 9명 중 지난 2017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대거 교체, 곽범기, 김기남, 리만건, 최태복 등 원로들은 퇴진하고 박광호, 박태성, 박태덕, 안정수, 최휘 등을 임명하며 대폭 물갈이식 세대교체

- 정무국 부위원장들의 담당 임무는 최룡해(조직), 태종수(군수), 안정수(공업), 김영철(대남), 리수용(국제), 오수용(계획재정), 김평해(간부), 박광호(선전), 박태성(과학교육), 박태덕(농업), 최휘(근로단체) 등으로 분류 가능

○ 당 비서국(정무국) 전문부서 부장급 인물 변화

	2010년	2016년	2017년
조직지도			최룡해
선전선동	김기남	김기남	박광호
간부	김평해	김평해	김평해
총무	태종수	태종수	주영식(?)
국제	김영일	리수용	리수용
통일전선	김양건	김영철	김영철
군사	오일정		김만성(?)
민방위		리영래	리영래
계획재정	홍석형	오수용	오수용
재정경리		김용수	김용수
경공업	김경희	안정수	안정수
농업		리철만	리철만
군수공업(기계공업)	주규창	리만건	태종수
근로단체	리영수	리일환	리일환
과학교육	최희정	최상건	최동명
당역사연구소	김정임	김정임	량원호
문서정리		김중협	김중협
39호실	전일춘	전일춘	신룡만

- 김정일 정권 시기 당부장급 인물중 김평해(간부), 태종수(군수)만 유입
- 2017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리철만, 박광호, 김용수, 김만성, 주영식, 신룡만, 최동명 등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로서 신진 테크노크라트의 부상으로 평가
- 김만성과 주영식은 담당 전문부서가 명확하지 않음
- 리철만은 40대로서 농업분야 전문가로 발탁, 신룡만은 39호실 부실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김씨 일가 자금 담당, 주영식은 자강도당

책임비서 출신으로 군수분야 전문가, 박광호는 당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오래 근무

## 나. 국무위원회(국방위원회)

2010년(국방위원회)	2016년(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오극렬, 김영춘, 장성택 위 원: 전병호, 백세봉, 주상성,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	부위원장: 최룡해, 박봉주, 황병서 위 원: 최부일, 김원홍, 리만건, 박영식, 김기남,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대폭 교체, 김정일 정권 국방위원회 위원 모두 숙청, 사망 또는 퇴진
- 현 국무위원회는 김정은이 위원장이며, 노동당 상무위원 3명(최룡해, 박봉주, 황병서)이 부위원장
- 과거 국방위원회는 군과 군수, 공안 분야 인물들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국무위원회는 당(최룡해), 내각(박봉주) 공안(최부일), 군/군수(박영식), 대남/대외(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등 국정 전분야 포함,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구축 평가
- 당중앙위원회 7기 2차 회의에서 김기남, 리만건이 퇴진과 황병서와 김원홍의 철직 또는 숙청 가능성이 있어 인물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 불가

## 다. 당중앙군사위원회

### ○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물 변화

2010년	2016년	2017년
부위원장: 김정은,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 최룡해, 장성택	김경옥, 김영철, 김원홍, 리만건, 리명수, 리영길, 박봉주, 박영식, 서홍찬, 최부일, 황병서	리병철, 박봉주, 박영식, 서홍찬, 장길성, 정경택, 최부일, 최룡해, 황병서

- 당중앙군사위원회는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시 후계자 김정은을 리영호 총참모장과 공동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군 및 공안분야 모든 기관 책임자를 후계자 명령지휘체계하에 둬으로써 후계체제 공고화하려는 김정일의 기획

- 김정일 정권 당시 17명 중 리병철, 최부일, 최룡해 3명만 유임
- 새로 임명된 장길성은 인민무력부 정찰국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정찰총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김영철은 해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총인원도 17명에서 2017년 9명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당(군수공업부), 내각(총리), 군(총정치국, 인민무력성), 대남(정찰총국),公安(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 3명(최룡해, 황병서, 박봉주)을 모두 포함시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군사정책 결정기구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
- 호위 / 보위 / 해군 / 공군사령관 등 군 지휘관은 모두 배제

#### 4. 김정일의 핵심 측근 엘리트 분석

##### 가. 고려 요소

- 엘리트가 속한 조직의 위상과 역할 측면
  - 당정군 조직의 위상 측면에서 볼 때 당정치국 26명을 포함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소속된 인물들은 핵심엘리트 그룹으로 평가
  - 金正은이 정권 차원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인 정권보위(공안), 핵개발, 대외, 대남 등의 최고책임자와 핵심 실무진
- 핵심 요직의 겸직 측면

	정치국	정무국	당부장	국무위	군사위	정/군 직책
최룡해(5)	√	√	√	√	√	
김영철(4)	√	√	√	√		
박봉주(4)	√			√	√	총리
박영식(4)	√			√	√	인민무력상
리수용(4)	√	√	√	√		
최부일(4)	√			√	√	인민보안상
김평해(3)	√	√	√			
오수용(3)	√	√	√			
박광호(3)	√	√	√			
태종수(3)	√	√	√			

안정수(3)	√	√	√			
리용호(3)	√			√		외무상
정경택(3)	√				√	국가보위상
최 휘(3)	√	√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로두철(2)	√					부총리/국가계획위원장
로광철(2)	√					제2경제위원장
리병철(2)	√				√	당군수공업부제1부부장
박태덕(2)	√	√				
서홍찬(2)					√	인민무력성 제1부상
장길성(2)					√	정찰총국장

- 당정군 핵심 요직의 겸직 현황을 보면 최룡해가 5개 보직을 겸직
  - \* 정치국 상무위원, 정무국 부위원장, 조직지도부장, 국무위 부위원장, 중앙군사위원
- 김영철, 박봉주, 박영식, 리수용, 최부일은 각각 4개의 중요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바, 경제, 군, 외교, 공안 분야에서 최고 실세 겸 측근
  - \* 김영철: 정치국 위원, 정무국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 국무위원
  - \* 박봉주 :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 부위원장, 중앙군사위원, 내각 총리
  - \* 박영식 : 정치국 위원,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 인민무력상
  - \* 리수용 : 정치국 위원, 정무국 부위원장, 국제부장, 국무위원
  - \* 최부일 : 정치국 위원,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 인민보안상
- 김평해(간부), 오수용(계획재정), 박광호(선전), 태종수(군수), 안정수(경공업) 등은 정치국 위원과 정무국 부위원장, 당부장 등 3개의 중요 직책을 겸직,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정무국 부위원장 겸직 등 3개 겸직
- 리용호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무위원을,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원 등 2개 보직 겸직
- 로두철 부총리, 로광철 제2경제위원장,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은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의 직책을 겸직, 박태덕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정무국 부위원장 겸직

○ 2017년 김정은 공개활동시 수행 빈도 측면

20회	조용원(44, 25), 황병서(41, 28)
10회	리병철(14, 17), 최룡해(26, 15), 김정식(9, 15), 장창하(0, 11),
5회	김락겸(5, 9), 리만건(16, 8), 리영길(12, 8), 박봉주(6, 8), 박영식(13, 8), 정승일(2, 8), 김용수(5, 7), 리명수(17, 7), 안정수(8, 6), 오수용(18, 6), 유진(3, 6), 김광혁(1, 5), 김수길(4, 5),
기타	김기남(10, 2), 김영철(4, 0), 김평해(4, 0), 최태복(5, 2), 김여정(8, 0), 김창광(5, 0), 리수용(4, 1), 리일환(8, 1), 마원춘(17, 4), 림광일(4, 0), 박정천(9, 2), 박태성(4, 2), 서홍찬(4, 3), 윤동현(9, 1), 조정철(4, 2), 조남진(7, 3), 홍승무(4, 1), 홍영철(12, 1)

\* 수행 횟수는 (2016년, 2017년), 2017년도는 11월까지 공개활동 포함

- 2017년도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핵도발에 집중되면서 공개활동이 대폭 감소되어 수행빈도 분석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 2016년도 수행빈도 포함하여 판단
- 2017년도 김정은의 공개활동 총 81회 중 20회 이상 수행한 인물은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인데, 황병서는 현재 철직(숙청?) 상태
- 10회 이상 수행한 인물중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정승일, 김정식 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인물로서 2017년도 김정은이 각종 미사일 발사현장을 참관하면서 수행횟수가 많았음
- 5회 이상 수행한 인물들 중에서도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진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영길 작전총국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명수 총참모장, 김광혁 항공반항공사령관 등 군부 인물들이 많은 것은 2017년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또는 군사훈련 관련 공개활동이 많았다는 점과 관련 있음
- 그 외 박봉주 총리, 김용수 재정경리부장, 안정수 경공업부장, 오수용 계획재정부장, 김수길 평양시 책임비서 등이 김정은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됨
- 2016년도 수행 빈도를 고려하면, 김기남, 최태복 등 원로 그룹을 포함하여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일환 근로단체부장, 마원

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박정천 포병국장, 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 박태성 정무국 부위원장, 조남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홍승무, 홍영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도 김정은 공개활동시 수행빈도가 높은 측근

○ 김정은의 주요 공개활동시 수행 인물

- 김정은 후계자 후견체제 : 2010년 9월 27일 3차 당대표자회 직전 김정은 후견체제 구축 위해 대장 계급으로 승진한 인물 중 최룡해와 최부일 건재
  - ※ 김경희와 김경옥은 퇴진, 장성택과 현영철은 숙청
- 김정일 운구차 호송 7인방(2011년 김정일 장례식) : 김기남과 최태복 건재,
  - ※ 리영호 총참모장, 장성택 행정부장은 숙청
  - ※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부장은 인민무력부장을 거친 뒤 김일성군사종합대학교 총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퇴진
- 삼지연 그룹(2013년 11월 김정은의 삼지연 방문시 수행, 장성택 숙청 관련) : 박태성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김병호 선전선동부 부부장, 홍영철 기계공업부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은 건재
  - ※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황병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숙청 또는 철직,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사망
  - ※ 한광상 재정경리부장은 철직되었다가 최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임명되었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서 인민군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복귀
- 2015년 4월 18일 김정은의 백두산 등정시 수행 : 최룡해, 리병철 건재
  - ※ 김양건은 사망,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퇴진
- 2017년 12월 7일 박두산 등정 : 최룡해, 김용수 재정경리부장,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라상원 양강도당 책임비서, 양정철 삼지연군 위원장

## 나. 김정은 핵심 파워엘리트

### ▲ 핵심 측근 파워엘리트

#### ○ 핵심 파워엘리트

- 당정치국의 위상 강화, 검직 현황, 김정은 공개활동 수행빈도, 말은 직책의 중요성 등 종합적 고려, 대내외정책 결정의 핵심 실세 파워엘리트 식별
- 당에서는 최룡해, 김영철, 김평해, 오수용 등이며, 정부/경제는 박봉주, 로두철, 최부일, 리수용 그리고 군에서는 박영식, 태종수 등이 각각의 분야에서 정책 결정에 있어 핵심 역할 수행
- 김기남, 리만건, 최태복 등은 2017년 당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2선으로 퇴진하였지만 막후실세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

#### ○ 측근 실세 엘리트

-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심엘리트의 세대교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권력 핵심으로 진입한 신진엘리트들은 김정은이 직접 기용한 인물들로서 김정은의 친위세력으로 분류 가능함
- 그러나 국정 참여 경험 부족 등으로 정권보위, 김정은의 교시 집행 등에 있어 최선봉에서 돌격대 역할하는 인물들로 평가
-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 1년만인 2017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정치국을 비롯하여 주요 당기구에 신진엘리트로 대폭 교체한 것은 그동안 김정은의 측근들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는 세대교체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
- 즉 정경택(국가보위상), 박태성(정무위 과학교육담당 부위원장), 안정수(경공업부장), 리용호(외무상), 최휘(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박태덕(정무위 농업담당 부위원장), 박광호(선전선동부장) 등은 김정은의 친위세력으로 측근 실세로 분류

#### ○ 수행 측근 엘리트

- 김정일 정권에서 공개활동 수행횟수가 많았던 현철해 등은 김정일의 질문에 답을 한다거나 하는 등 현장과 인물들에 대한 해박

한 지식으로 공개활동을 보좌

- 김정은 정권에서 이와 같이 김정은의 공개활동 전반을 보좌한 인물들로서 부부장급인 조용원(조직지도부), 마원춘(건축), 홍영철·홍승무·김정식(미사일), 김용수(재정) 등

▲ 분야별 핵심 엘리트

○ 통치·공안 분야

	2010년	2017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당), 김경옥(군), 민병철(생활지도) 부부장: 김인걸, 황병서	부장: 최룡해 제1부: 홍인범, 김경옥(?), 김여정(?) 부부장: 조용원
선전선동부	부장: 김기남 제1부부장: 리재일, 최휘 부부장: 권혁봉, 김병호, 김의순	부장: 박광호 제1부부장: 리재일(?) 부부장: 권혁봉, 김의순, 현송월(?) 노동신문주필: 김병호
국가보위성	제1부부장: 우동측 정치국장: 김창섭	상: 정경택 정치국장: 김창섭(?)
인민보안성	부장: 주상성 정치국장: 리병삼	상: 최부일 제1부장: 리태철 정치국장: 강필훈, 부국장: 리두성

- 조직지도부는 공안기관을 지휘하고 당정군의 인사, 검열권을 행사하는 노동당 최고권력기구로서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과장들이 북한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김씨 왕조 유지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서 김씨 일가의 직할통제 체제로서 그동안 부장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최룡해를 임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최룡해를 견제, 통제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1부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설이 있음
- 그동안 조직지도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제1부부장이 실질적으로 조직지도부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 장성택, 리제강 등이 제1부부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으며,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조연준이 제1부부장이 장성택 처형 등 각종 숙청을 주도
- 그러나 2017년 10월 당중앙위원회 7기 2차회의에서 조연준이 당 검열위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최룡해를 조직지도부장, 김여정은 제

1부부장에 임명하고 부담스러운 조연준을 이동하는 등 조직지도부의 전반적인 물갈이 교체가 진행되었을 가능성

- 김경옥 제1부부장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견세력으로 대장 계급을 받았던 인물인데 최근 공개활동이 전혀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홍인범 부부장이 평안남도 당위원장을 거쳐 제1부부장으로 복귀하였다는 설이 있음
- 박태성은 김정은이 가장 총애하는 인물중 한명으로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평안남도 당위원장을 거쳐 지난 당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 정무위 과학교육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조직지도부로 복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
- 선전선동부는 김기남이 최근 해임되고 선전선동부에서 오랫동안 부부장이었던 박광호가 선전선동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1부부장이었던 리재일은 공개활동이 식별되지 않고 있고, 최휘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임명, 김정은 백두산 등정시 동행했던 김병호는 노동신문 주필
-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공연 관련 남한을 방문하였던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설이 있음
- 국가보위상은 최근 김원홍의 숙청 이후 국가안전보위부 조직부국장을 역임한 정경택이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준택 전 내각부총리(73년 사망) 아들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이름 마지막자가 '택'자라서 부자지간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
- 인민보안성은 김정은의 어린 시절 농구선생이었던 최부일이 김정은의 총애를 받으며 장기간 재직중이며, 김정은 정권 들어 부상한 리두성이 부국장

○ 경제 분야

		2010년	2017년
당		홍석형(계획재정) 김경희(경공업)	오수용(계획재정), 김용수(재정경리) 안정수(경공업), 리철만(농업)
내각	총리	김영일	박봉주
	부총리	곽범기, 로두철, 박명선, 박수길, 오수용	고인호(농업상), 김덕훈, 김인식, 로두철, 리무영(화학공업상), 리용남, 임철용, 전광호

국가계획 위원장	로두철	로두철
-------------	-----	-----

- 경제 분야는 당과 내각으로 구분되는 바, 2011년 당시 당의 계획 재정부장 홍석형이 퇴진하고 신진 테크노크라트로 교체, 특히 김용수 재정경리부장은 거의 알려진 바 없는 인물이며, 신설된 농업 부장에 40대인 리철만이 임명된 것은 파격적인 세대교체로 평가,
- 내각에서는 박봉주가 80세에 가까운 연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총리로서 북한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당 경공업부장인 안정수는 박봉주 최측근으로 추정
- 김정일 시대 내각 부총리였던 경제통 오수용이 당 계획재정부장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공업(안정수), 농업(리철만), 경리(김용수) 등을 총괄
- 로두철 부총리는 국가계획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김정일 시대부터 경제분야 핵심 측근
- 내각 부총리 중 김덕훈은 교육 분야, 리용남은 대외경제담당 부총리로서 중국통인데, 40-50대로서 비교적 젊은 테크노크라트

○ 외교 분야

		2010년	2017년
당		김영일(국제담당), 강석주(제1부)	리수용(국제담당)
외무성	외상	박의춘	리용호
	부상	김계관(제1), 김창규, 궁석웅, 김형준, 박길연, 김성기, 리용호	김계관(제1부상), 궁석웅, 리길성, 신흥철, 최희철, 한성렬, 허용복, 박명국

- 외교는 오랫동안 핵심측근이었던 강석주가 사망하고 국제담당비서였던 김영일은 장성택 추종세력으로 숙청
- 당의 리수용 국제부장(외무상 역임), 리용호 외무상, 김계관 제1부상 체제
- 리용호, 김계관, 한성렬 부상, 최선희 국장은 대미외교, 리수용과 리길성 부상은 대중국, 궁석웅, 신흥철은 유럽, 허용복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외교 담당

- 리용호 외무상은 김정일 일가 생활을 담당하였던 리명제 전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로써 김정일의 성장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 대남 분야

- 대남분야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국가기구로 승격하는 변화가 있었음
- 노동당 외곽조직이었던 조평통을 국가기구로서 내각의 '상급'기관으로 승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남북회담시 우리의 통일부장관의 상대역으로서 조평통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임
  - ※ 지난 2015년 목함지뢰도발 이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개최된 2+2 회담시 우리 측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상대로 황병서 총정치국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상대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요구하였던 바 있는데, 북한은 통전부장 상대로 청와대 안보실장을 요구하며 반발한 적이 있음
-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통일전선부장으로, 리선권이 조평통 위원장 승진
  - ※ 리선권은 2004년부터 남북 장성급 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에 총 27번 참여, 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2010년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실무접촉, 2010년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 등 북한군 남북 군사회담 대표로 김영철을 보좌하였던 인물
- 통전부 부부장은 안경호, 맹경일(아태위 부위원장), 강지영(조평통 서기국장 겸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이며, 조평통 부부장은 전종수

#### ○ 핵/미사일 개발 분야

- 당군수공업부장은 김정일 시대부터 전병호, 주규창, 박도춘, 김춘섭, 리만건을 거쳐 최근에 태종수가 임명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12월 11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태종수, 로광철, 장창하, 전일호, 홍승무, 홍영철 등이 참석하고 태종수가 최초 보고자로 나서 태종수가 군수공업부장 겸 정무국 군수담당 부위원장일 가능성
  - ※ 군수공업부장에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지낸 주영식이라는 설도 있음

- 제1부부장은 리병철, 부부장은 강관일, 홍승무, 홍영철, 유진, 정승일, 김정식이나 리병철 제1부부장 2선 퇴진 가능성
  - 제2경제위원장은 김정일 시대 백세봉에서 조춘룡으로 교체되었다가 최근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역임한 로광철로 교체
  - 국방과학원장은 조춘룡에서 당군수공업부 부부장 출신인 장창하가 임명되었고, 핵무기 연구소장은 리홍섭
- ※ 홍영철은 군수공업 실무전문가이며, 홍승무는 3차 핵실험시 실무책임자, 조춘룡은 미사일담당 총국장 출신, 로광철 제2경제위원장도 미사일 전문가

○ 주요 군조직 인물 변화

		2010년	2017년
인민 무력성	상(부장)	김영춘	박영식
	부상 (부부장)	현철해(제1부부장), 박재경, 정창렬, 김상익, 변인선, 김택구, 김우호	서홍찬(제1부상), 김택구, 강표영, 윤동현, 김정관, 김형룡, 최세관
총정 치국	국장	조명록(사망)	황병서(?)
	부국장	김정각(제1부국장), 심상대, 한동근	조남진, 럽철성, 김동화
총참 모부	총참모장	리영호	리명수
	작전(총)국장	김명국	리영길
	정찰총국장	김영철	장길성
	부총참모장	최부일, 오금철, 리태원, 김수학, 한원화	김명식, 김명식, 김명환, 김수학, 방관복, 오금철, 주동철
	포병국장		박정천
기타 사령관	해군	정명도	리용주
	항공/반항공	리병철	김광혁
	전략군	최상려(미사일지도국)	김락겸
	특수작전군	최경성(폭풍군단)	김영복
	호위사	윤정린	윤정린(?)
	보위국	김원홍(보위사령부)	조경철

- 김정일 정권시 군부 고위 간부중 리병철 공군사령관(현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최부일 부총참모장(현 인민보안상)을 제외하면 모두 퇴진
- 총정치국장은 김정각→최룡해→황병서로 교체되었으나 최근 황병

서가 철직(대좌로 강등설)되면서 교체 가능성이 있음

- 인민무력성은 김영춘→김정각→김격식→장정남→현영철→박영식으로 6번 교체

※ 참고로 김일성 시대 40년 동안 인민무력부장은 최용건, 김광협, 김창봉, 최현, 오진우 등 5명, 김정일 시대 17년 동안 최광, 김일철, 김영춘 등 3명

- 총참모장은 리영호→현영철→김격식→리영길→리명수로 5번 교체되었는 바, 리명수는 80세 노인인데 김정일 시대부터 작전국장을 여러 번 역임할 정도로 군사전략가로서 명성이 있는 인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등으로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리영길보다 경험이 풍부한 리명수를 기용하여 차기주자 리영길과 협력체제 구축 의도 평가

- 작전(총)국장은 김명국→최부일→리영길→변인선→김춘삼→로광철→리영길로 7번 교체되었는 바, 리영길이 전략과 작전에 밝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짐

- 인민무력성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도 현철해→전창복→로광철→서홍찬으로 4번 교체

- 해군사령관은 정명도→김명식→리용주로 3번 교체

-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은 리병철→최영호→김광혁으로 바뀌었음

- 호위사령관은 윤정린이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4년 12월 이후 김정은 수행 등 공개활동이 일체 중단되어, 교체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2015년 이후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명수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주요 지휘관들이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군부의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교체된다면 조직지도부 군담당 부부장이 임명될 가능성(황병서도 조직지도부 군담당 부부장)이 있으며,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총정치국 부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능성도 있어 군부 인사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군부 핵심측근은 당중앙군사위원인 박영식 인민무력상, 서홍찬 제1부상, 장길성 정찰총국장을 비롯하여 김정은 공개활동시 수행 횃

수가 많은 리영길 작전총국장,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박정천 포병사령관, 김광혁 항공반항공사령관, 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 등

- 최근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으로 박영식 인민무력상의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인민무력성이 총정치국과 총참모부를 지휘하는 과거 위상을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 즉 김정일 정권 당시 군조직체계가 총정치국 우위하에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의 병렬체제로서 인민무력부는 후방지원만을 담당 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박영식 인민무력상의 부상으로 인민 무력성이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을 지휘하는 체제로 개편되었을 가능성

## 5. 평가 및 전망

### 가 엘리트 교체 측면

- 김정일 시대 핵심 측근 엘리트 대부분 퇴진
  - 김정일 정권 말기 공개활동 수행이 가장 빈번하였던 인물들 전체 31명 중 7명이 최근까지 김정은을 수행, 24명은 수행 중단
  - 김정일 정권시 2010년 10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임명된 당정치국 인물 총 30명 중 5명(김영남, 양형섭, 최룡해, 김평해, 태종수) 만 현재 정치국 직책유임
- 점진적 엘리트 교체 추진
  - 김정일과 김정은 공개활동시 총 수행 인원 숫자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 49명 수행 → 2010년 63명 → 2011년 71명 → 2012년 96명 → 2013년 116명이 수행하여 총 수행인원면에서 계속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2014년 100명 → 2015년 101명 → 2016년 76명 → 2017년 수행 53명으로 감소
  - 김정은 정권 초기 김정일 시대 인물과 김정은이 발탁한 인물들이 겹치는 상황, 2013년 장성택 숙청을 정점으로 2014년부터 총 수행 인원 점차 감소
  - 최다 수행 인물도 2009년에는 김기남, 장성택, 박남기, 현철해 등

김정일 측근들이었는데, 2014년에는 황병서, 최룡해, 한광상, 리영길, 서흥찬, 마원춘 그리고 2017년에는 조용원, 황병서, 김정식, 김용수 등 김정은 측근으로 완전히 변화

- 이는 김정일 시대 인물들이 대거 퇴진한 것도 있지만, 김정은의 국정운영 능력 향상으로 수행원 숫자 감소한 것으로 평가
- 또한 급격한 엘리트 교체가 정권의 지배연합을 불안정하게 할 것을 우려 점진적인 교체 추진한 것으로 평가

○ 신진엘리트가 대거 기용되면서 세대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장청 조화 통한 정권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김정은 정권의 핵심 파워엘리트 중 20년대생(김영남, 양형섭), 30년대생(태종수, 조연준, 리명수, 박봉주 등), 40년대생(황병서, 최부일, 오수용, 최부일, 리수용, 리병철, 김영철, 궁석웅, 김계관 등)이 아직 핵심 측근으로 존재, 로두철과 최룡해도 50년생으로 70세 가까운 나이
- 반면에 50년대생은 한광상(57년생), 오일정(54년), 박태성(55년), 마원춘(56년), 리영길(55년), 리용호(56년)이며, 60년대생은 리일환(60년), 김덕훈(61년), 김병호(60년), 리철만(68년),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립철웅 부총리 겸 정치국 후보위원도 50대인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부상한 대부분의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신진 엘리트들은 대부분 50대 이하일 것으로 추정

○ 당·정의 각 협의체 기관들의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의 정상화 도모

-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노동당, 인민군, 내각, 공안기구 등과 개별적인 수직관계를 통해 자신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며 당정치국 등 협의체기구는 실제 운영되지 않았음
- 특히 김정일 시대에는 당정치국을 비롯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협의체 기구는 김정일 측근들에 대한 상징적 또는 예우와 시혜 차원의 인사로서 실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으며, 다만 당비서국의 전문부서만이 정상적으로 작동

- 또한 김정일은 각 기구의 최고 직책의 소유자보다 차계선(제1부 부장) 또는 차차계선(부부장)의 직책을 가진 간부를 통해 국정운영
- 그러나 김정은은 우선 당정치국과 정무국을 비롯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등에 국정운영의 각 분야 책임자 또는 실세 측근들을 임명하여 당의 정책결정 기능과 국무위원회와 내각의 집행 기능 정상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
- 리용호 외상의 정치국 정위원 진입 등 당정군 핵심부서의 책임자를 실세화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의 책임과 권한 강화

## 나. 엘리트 충원 측면

### ○ 전문성을 중시

- 김정은 집권 이후 엘리트의 승진 인사는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 이동
- 공안, 선전, 대남, 외교, 군수 등 각 분야 엘리트들은 해당분야에서 평생 근무한 전문가

### ○ 중앙당과 지방 당위원회를 순환시키며 현장 경험을 중시

- 평양의 핵심 엘리트들은 지방 도당위원장을 거쳐 평양의 핵심 보직으로 복귀
- 예를 들면 군수공업부장 등 군수책임자는 군수공업 중심지인 평안북도와 자강도 도당위원장을 거쳐야 하는 바, 박도춘, 리만건, 박도춘, 태종수 등은 자강도나 평안북도 당위원장(책임비서) 출신
- 조직지도부 부부장 출신인 박태성과 홍인범은 평안남도 당위원장을 역임하고 중앙당으로 진출

### ○ 정권 보위기관 출신 중시 인사

-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은 조직지도부 부국장 출신이며,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출신으로는 김원홍 전 국가안전보위상, 평양시 당위원장(책임비서) 김수길,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이며,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국가안전보위성 정치국 조직담당 부부장 출신

- 조직지도부와 총정치국 등 정권 보위기관 인물들을 중시하는 것은 김씨 왕조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며, 해당 기관의 간부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 조직 장악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엘리트 충원이 핵심계층의 후손으로 세습체제

- 북한에서 고위간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김씨 일가의 친인척, 빨치산과 당정군 고위 간부 후손 등 성분이 가장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 최근 부상한 인물들의 신상파악이 어려움으로 인해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 핵심 간부들은 빨치산 또는 당정군 고위 간부 후손일 가능성이 높음
- 김정은 정권 핵심 엘리트 중에 친인척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의 고모부이며, 리용무는 사돈
- 한편 빨치산과 당정군 고위 간부 후손들이 다니는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는 최영립, 최태복, 오극렬, 최룡해(최현 아들), 태종수, 오금철(오백룡 아들), 오일정(오진우 아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핵심 엘리트들이 대거 포함
  - ※ 만경대혁명학원은 빨치산 후손, 혁명 유가적, 고위간부 자녀 교육기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과정이며 대부분 김일성대학교로 진학
- 전일춘 전 39호실장은 김정일과 같은 남산고급중학교 졸업
- 고위간부 아들로는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정춘택 전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73년 사망)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으며, 리용호 외상은 김정일 일가 생활을 보살폈던 리명제 조직지도부 부부장 아들, 주영길 직총위원장은 빨치산 주도일 차수 아들

**다. 김정은 정권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측면**

- 점진적 교체, 핵심계층 세습에 기반한 교체 등 지배연합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독재권력에 있어서 지배연합은 수령과 권력엘리트들의 강한 네트워크로 운명공동체로 엮어지는 것을 의미

- 김정일의 경우 장기 집권으로 엘리트 장악력이 매우 높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명록 총정치국장을 비롯하여 김영춘, 김일철, 김기남, 현철해, 최태복 등 핵심 측근들을 장기간 중용하는 안정적인 지배연합체제 구축
  - 반면에 김정은 정권 초기 김정일 시대 핵심 실세 대거 퇴진, 후견 세력 리영호, 장성택 등의 숙청 등으로 인해 지배연합체제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서서히 엘리트 교체를 추진되었고,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 대부분이 빨치산, 당정 고위간부 등 핵심계층 후손 중심 엘리트를 교체
  - 이와 같이 핵심계층 엘리트 후손들은 김씨 왕조의 최대 수혜계층으로서 김정은과 공동운명 인식이 강하고, 1960년대, 1970년대 주체사상에 의한 강력한 주입식 교육으로 김씨 왕조에 대한 절대 충성 집단
- 초기 정권 도전 인물 또는 세력에 대한 잔혹한 처형 등 공포정치 일변도였지만, 2015년 이후 정책적 실책에 대해서는 관대한 리더십을 과시하는 용인술로 엘리트 충성심 제고
- 김정은 정권 초기 리영호, 장성택, 현영철 등 잔혹한 처형과 그 추종세력 대대적으로 제거하며 정권 도전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김정은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충성 유도
  - 그러나 2015년 이후 최룡해, 김영철, 리영길 등 핵심엘리트에 대해 일정기간 강등 및 혁명화교육 후 다시 등용하여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지도력을 과시
  - 최근 황병서, 김원홍 등의 숙청설이 있으나 처형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군부 장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 사회주의, 독재국가는 무력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군부의 비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군부가 항상 독재정권의 최대 위협

이라는 것을 의미

-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는 군 중심의 통치구조로서 군부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군부는 나이 어리고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에게 매우 위협적 세력이었을 것
  - 따라서 김정일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과 리영호 총참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군부 고위 간부와 지휘관을 망라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부 모든 지휘관들이 후계자 김정은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도 김정일이 후계자 김정은의 군부 권력 장악이 가장 시급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임
  - 김정은은 집권 직후 김정일 시대 군부 핵심실세를 우선적으로 퇴진시켰으며, 그에 따라 현철해, 김영춘, 리명수, 김명국, 리영호, 박재경, 우동측, 김정각, 백세봉 등은 군부 실세가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대부분 퇴진
  - 그리고 김정은 집권 6년여 동안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작전국장 등 군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잦은 교체, 숙청, 강등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군부를 장악하고 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압 조치로 평가
  - 물론 핵개발 강행으로 인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군의 정권 보위 임무가 막중하다고 인식하고 군기 장악의 의미도 있음
- 김정일 시대 엘리트 퇴진, 신진 엘리트 부상은 북한의 핵심계층 내 엘리트 집단의 갈등을 심화시켜 정권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 북한의 지배 엘리트의 교체는 핵심계층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 지배연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계층 내에서 신진엘리트의 부상은 기득권 엘리트의 하락 또는 몰락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세력이 장성택 추종세력과 김정일 정권 당시 군부 실세 그룹
  - 북한 엘리트들은 김씨 왕조가 베풀어주는 시혜(주택, 식량 배급 등), 당정군 고위직책을 이용한 각종 이권과 특권으로 벌어들이는 경제적 수입 등으로 초호화생활 영위 가능

- 그런데 핵심 엘리트 그룹으로부터의 탈락은 이와 같은 시혜와 경제적 수입의 감소 또는 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과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임
  - 특히 경제규모가 작은 북한에서 김씨 왕조로부터 이권과 특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구세력과 신진 엘리트간의 이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리영호 총참모장, 장성택 숙청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권과 관련한 갈등이 문제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엘리트 갈등의 진원이 될 수도 있음
- 신진 엘리트의 성향이 정권 유지, 기득권 지키기에 몰입,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대외적으로 상당히 호전적인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 정권의 특징은 김씨 일가의 유일지배체제, 대내외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정권유지에 모아지는 정치과잉 그리고 핵개발이 대내외정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북한 정권의 특징은 합리적인 정책분석 및 평가가 불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국가 대전략 및 장기계획 수립이 불가능
  - 김정은의 정책결정 컨트롤타워 역할 능력 부재한 가운데, 신진엘리트들은 김정은 정권 유지를 통해 자기 신분과 계층 수호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경쟁에 몰입하며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
  - 또한 김정은 정권 유지가 궁극적 목표인 바, 미국, 한국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타협하기보다는 매우 호전적인 태도로 강력한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김정은 정권 초기 장성택 등의 잔혹한 처형 등 공포정치로 인해 개혁적 제안 불가
- 조직지도부의 독주체제, 감시와 균형의 분할통치 약화로 정권 불안정요소 잠재
- 전통적으로 독재정권의 안정은 분할통치(divide-and-rule) 용인술

이 중요한 바, 김정일은 엘리트들 상호간에 견제와 감시를 활용 자신에게만 충성경쟁을 하도록 하는 노련함으로 권력 안정 유지

- 대표적인 사례가 김정일 정권 말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지도부에서 행정부를 분리하여 장성택에게 맡김으로써 조직지도부는 당과 군의 간부, 행정부는 검찰,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기구 통제로 상호 견제와 감시 활용
- 그러나 김정은 시대 장성택을 숙청하고 분리되었던 행정부를 다시 통합한 조직지도부는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복원
- 물론 김정은 집권 이후 당조직지도부와 함께 황병서의 군 총정치국, 김원홍의 국가안전보위부 등 정권 보위 기관들이 상호 감시와 견제의 분할 통치가 가능
- 그러나 최근 총정치국이 검열을 받고 황병서를 비롯한 총정치국 간부들이 숙청 또는 철직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안전보위부도 김원홍을 비롯하여 고위간부들이 숙청됨으로써 당조직지도부가 견제와 감시 없는 무소불위 권한 보유 가능성
- 이는 과거 2010년 조직지도부장 리제강 암살과 같이 권력투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임

□